

김영란법 시행 1년...

고급음식점 '개인카드' 이용 ↑

법인카드 승인 2.8% 줄고, 개인카드 7.4% 늘어 도소매업 카드승인 증가... 화훼업 등 일부 영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고급음식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줄어든 반면 개인카드 사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에서의 카드승인액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 위축 등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카드 승인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 제출한 '정탁금지법 이후 음식점 및 관련 도소매업 카드승인액 증가율에 따른 매출액 음식점과 김영란법 관련 도소매업에서의 카드승인액 증가율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BC카드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김영란법 시행 전(지난해

1~9월), '시행 직후(지난해 10월~12월)', '현재(올 1~8월)' 등 3 단계로 나눠 월평균 카드승인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다.

먼저 음식점에서의 카드 승인액은 지난 2년간(2015~16년) 같은 기간 대비 월평균 3.3% 증가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의 월평균 증가율 2.6%에서 0.7%p 상승한 것이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던 고급 음식점에서의 카드 승인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 시행 직후에는 월평균 -4.7%로 크게 감소했으나 올들어 1.8%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법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2.8%로 줄어든 반면 개인카드 승인액이 7.4%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급 음식점에서의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법 시행 직후(3.9%) 뿐만 아니라 시행 이전(5.7%)과 비교해도 크게 높아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8월까지 고급 음식점에

서의 개인카드 승인액은 월평균 8.0%까지 뛰었다. 개인카드로 '더치페이'가 이뤄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한다.

도소매업은 김영란법 시행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법 시행 이전 카드승인액 증가율은 1.2%에 불과했으나 시행 직후 1.9%, 현재 2.3%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도소매업 중 화훼업의 경우 법인카드 승인액 증가율(-6.8%)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업종의 카드승인액도 현재 2.6% 감소했다. 다만 화초·귀금속 판매업·식료품 전문업 등 김영란법과 관련된 다른 도소매업종의 카드승인액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신용카드 승인액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이 일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하지만 관련 업종의 카드매출은 소비심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 시행의 파급효과만을 정확히 구분해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

기아차, 광주 생산 '전술차량' 아덱스 2017서 우수성 알려

소형 전술차량·모하비 개조차 방산관계자에 호평



광주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형 전술차량.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소형 전술차량의 우수성이 국내외에 입증됐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 17일부터 8일간 경기 성남 서울공원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

산업 전시회(아덱스·ADEX 2017)'에서 기아차 군용 차량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기아자동차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중인 소형 전술차량을 비롯해 모하비 개조차를 함께 출품해, 우수한 성능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신개념의 미래 지상 기동장비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

시했다.

기아자동차가 광주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형 전술차량은 2016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군에 보급 중인 차세대 전술차량이다.

방탄·비방탄, 단축·장축 등 모듈화로 개발돼 각종 무기탑재와 지휘차량 등 다양한 차종 전개가 가능토록 기본 사시가 공용화 설계되어 활용도가 높은 차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소형 전술차량은 우리 군의 엄격한 시험평가를 거쳐 검증된 우수한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군 보급에 앞서 해외수출 타진, 해외테스트 진행과 함께 수출도 이뤄지고 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전시회 기간 동안 진행된 대내외 홍보와 수주 확보 노력을 통해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판매국가에서의 불량 확대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최대 규모 대단지 '광주 그랜드센트럴' 본격 분양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공급하는 '광주 그랜드센트럴' 조감도

광주시 내 최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광주 그랜드센트럴'이 오는 26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계림8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광주 그랜드센트럴'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

다.

'광주 그랜드센트럴'은 단지 규모에 걸맞게 중앙 테마광장, 조경 공간 등 쾌적한 아파트로 조성된다. 또 입주민 전용 휘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 북카페, 독서실, 입주민 회의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들에게 최적의 주거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의 특화설계도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타입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4bay-4room(일부세제 제외) 등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맞춤형 평상형구조(타입별 상이)가 적용된다. 드레스룸과 알파룸 등으로 다양한 수납공간도 제공된다(타입별 상이).

또한, 세대 내에는 홈IoT(사물인터넷) 시스템도 구축된다. 홈IoT는 기존의 홈 네트워크와 LG유플러스의 홈IoT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시스템이다. 입주민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조명, 냉·난방, 화재 감지, 생활 가전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단, IoT를 위한 생활 가전 별도 구매).

'광주 그랜드센트럴' 분양 관계자는 "계림8구역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광주시 동구에서도 입지가 뛰어나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며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의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견본주택 개관, 분양 일정 등에 대한 수백 통의 전화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그랜드센트럴'의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생촌동 96-7번지에 위치한다. 입주예정일은 2020년 9월 예정이다. 문의 : 062)372-2336

김연숙 기자

호반·중흥건설, 광주 동구 계림 8구역 재개발
지하 2층 ~ 지상 34층... 19개동 총 2336가구
오는 31일 특별공급 시작 내달 1일 1순위 청약

동 49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4층, 19개 동, 총 2,336가구(조합원 포함)의 대단지다. 일반에는 전용면적 59~119㎡의 1,739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분양중인 전으로, 분양가는 3.3㎡당 평균 900만원 초반대가 예상되고, 중도금 무이자 용자 혜택을 제공한다.

청약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월 1일 1순위 청약,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

모두 진행되면 총 1만여 세대의 브랜드타운이 예상된다.

특히 계림8구역은 동구에서도 입지조건이 우수하다. 우선 광주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금남로 4·5가역이 가깝고 제2순환도로, 호남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중흥초 수창초, 중장중, 광주고 조산대 등이 위치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인시장이 가깝고 법원, 동구청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

8월 광주·전남 금융기관 수신 1조807억원 증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금융기관 여·수신동향 발표

지난 8월 광주와 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여신은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7년 8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신은 전월 5496억원 감소에서 1조807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예금은행은 지방정부 교부금 유입

등으로 요구불예금 및 정기예금이 늘어나면서 9881억원이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신탁회사를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전월 350억원에서 1425억원으로 늘었다.

8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신 증가규모는 전월 4404억원에서 2117억원으로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확대됐으나 기업대출이 위축되면서 증가폭이 전월 2309억원에서 391억원으로 축소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2101억원에서 1726억원으로 둔화했다.

지역규광, 미래창조, 정보통신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